

# 언어 및 비언어 자극물에 따른 색채 이미지

(A study on the Color Image according of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안 옥 희<sup>\*</sup>  
(Ok-Hee An)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및 비언어적 자극물에 따른 색채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색채의 이미지는 “활동성”, “따뜻함”, “세련감”, “증량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됨을 알았다. 전체적으로 색명실험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색표실험에 의한 평가보다 약간 높았으며, 언어 및 비언어적 자극물, 즉 색표실험과 색명실험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특히 빨강과 노랑은 자극물에 따른 평가에 차이가 없으나 파랑과 녹색은 유의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lor Image according of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185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in this experiment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It was classified into the sense of activity, warmth, refinement and weight by Factors Analysi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Namely, the evaluation of color image by Nonlanguage stimulant was expressed strong. In particular, Red and Yellow were not shown the difference of evaluation by the stimulant. But Blue and Green were shown the difference of evaluation.

## 1. 서 론

색채는 색상, 명도, 채도의 색의 3속성과 배색효과, 패널의 특성 등에 따라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를 정량화하기는 대단히 힘들다[1]. 그러나 색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파악하여야만 제품의 색채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할 수 있으므로[2] 색채 이미지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색채 고유의 이미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종류의 형용사에 대하여 15종의 색상이 가지는 이미지를 순위법으로 살펴보았다[3]. 그 결과, 무채색인 흰색, 회색, 검정과 유채색인 빨강, 노랑, 파랑, 연두는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색채[4]의 이미지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색명을 사용하여 파악한 것으로 자극물의 특성과 평가법의 특성이 차이를 가진다.

흔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색채이미지에 대하여 언급할 때 대상이 되는 색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그 색채의 이름을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

\*정 회 원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취수일자 : 2000년 9월 18일

다. 이때, 패널의 특성에 따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색채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정확한 색체를 제시하거나, 먼셀기호 또는 색도도 상의 위치(XYZ값)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쉽게 색명을 사용하게 된다[5].

색명에 의한 색의 구분은 인종, 지역, 풍습, 개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색에 모두 이름을 붙이기도 불가능하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색상, 예를 들어 5B와 같은 색명은 색명 인지도가 아주 낮아 색명을 통한 색상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5].

따라서 색채이미지를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색채(비언어적 자극물)를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색명(언어적 자극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를 통한 색채이미지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William이 주장한 것과 같이 색채를 폭 넓은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 관계를 확실히 규정짓는 언어적 질서와 시각적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6]. 즉 색채와 언어는 본래 이질적인 것이지만 언어↔색채의 관계가 성립되어 언어와 색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동시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및 비언어적 자극물에 따른 색채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여 색채이미지를 보다 분명히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와 색표에 의한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지로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과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이라는 색명을 제시하고 각 색채에 대하여 19종의 형용사쌍에 대하여 5단계 SD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이하 색명실험이라 칭함). 이를 언어적 자극물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본다. 색표에 의한 실험은 색명을 사용한 조사에서 제시한 4종의 색상을 각각 가로 19cm, 세로 27cm 크기의 백지에 한국공업규격에 준하여 제작된 색종이를 붙여 제시하고 각 색채에 대하여 SD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이하 색표실험이라 칭함). 이를 비언어적 자극물에 대한 평가 결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물체색과 광원색의 1차색에 속하며, Berlin과 Kay가 말한 카테고리 기본 색명[8]에 속하며 선행연구[3]에서 고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피험자는 색각이 정상인 Y대생 185명(남 : 86명, 여 : 99명)이며, 실험기간은 2000년 5월이다.

자료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하였다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즉 색지각능력이 정상인 남녀대학생 185명은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보정(75.1%)하고 있으며, 색에 대한 관심도는 5점리커트 척도의 평균 3.96점으로 조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Table 1. The matters of Subjects

N=185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86(46.5)
	녀	99(53.5)
연령	20세 이하	80(43.2)
	21세 이상	105(56.8)
	M(SD)	21.1(2.3)
가족수	4인 이하	88(47.6)
	5인 이상	97(52.4)
안경착용	예	92(50.3)
콘택트렌즈착용	예	46(25.1)
색지각능력	정상	185(100.0)
색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 없다	0( 0.0)
	관심 없는 편	4( 2.2)
	보통이다	52(28.1)
	조금 관심 있다	76(41.1)
	관심이 많다.	53(28.6)

## 3. 연구결과 분석

### 3.1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3]에서 색채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항목을 참고로 19종의 형용사쌍에 대하여 5단계 SD법으로 평가하여 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요인은 4개로 분류되었으며 60.22%의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경쾌한'을 포함한 5개 항목이 1요인으로 묶여 이를 "활동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여성적인'을 포함한 5개 항목이 2요인으로 묶여 이

를 “따뜻함”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고급스러운’을 포함한 4개 항목이 3요인으로 묶여 이를 “세련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진정되는’을 포함한 5개 요인이 4요인으로 묶여 이를 “중량감”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표 2. 요인구조  
Table 2 Factor analysis of Color Image

평가항목	I	II	III	IV	공통성	요인명
정제한	.804	.291	-.006	.095	.749	활동성
짧은	.789	.096	.143	.153	.676	
세로운	.684	.221	.271	-.042	.592	
깨끗한	.635	.305	.273	-.077	.576	
빠른	.536	-.100	.057	.424	.480	
여성적인	.019	.778	.022	.097	.616	따뜻함
따뜻한	.125	.761	-.006	.136	.613	
부드러운	.364	.704	.072	-.191	.670	
밝은	.559	.638	-.003	-.040	.720	
가벼운	.107	.334	-.071	.010	.128	
고급스러운	.086	.169	.827	-.018	.721	세련감
세련된	.200	.110	.812	.091	.719	
도시적인	.050	-.163	.807	.142	.701	
현대적인	.178	-.217	.731	.093	.621	
진정되는	.028	.206	-.011	.800	.684	중량감
느긋한	.134	-.000	.032	.784	.633	
강한	-.088	-.322	.180	.588	.490	
화려한	.237	.406	.353	.479	.575	
눈에 띄는	.382	.311	.156	.466	.484	
고유치	5.41	2.83	1.95	1.27		
설명변량(%)	28.45	14.87	10.24	6.66		
누적변량(%)	28.45	43.32	53.56	60.22		

색채가 지닌 특정한 이미지를 측정하고 전체적으로 나타내 보기 위한 방법인 색채이미지스케일 작성 시 우리나라에서는 ‘정적인-동적인’, ‘부드러운-딱딱한’ 이미지를, 일본에서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이미지를 XY좌표로 많이 사용하는데[9], 본 연구에서 나타난 “따뜻함” 요인과 “활동성” 요인은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색채요인의 경우 “아름다움”요인, “화려함”요인, “강함”요인이 추출된다고 한 연구 결과[4]와는 “세련감”요인과 “중량감”요인이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230종의 단색을 평가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10]에서는 “평가성”요인, “활동성”요인, “역량감”요인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결과의 “활동성”요인, “중량감”요인과 유사하며, “평가성”요인은 “따뜻함”요인과 “세련감”요인으로 세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찰결과, 본 연구에서 파악된 색채의 요인분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며, 보다 세분되어 분류된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자극물 차이에 따른 색채이미지

언어 및 비언어 자극물에 따른 색채이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색표실험과 색명실험에 의한 평가값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색명실험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약간 높았으며 색표실험과 색명실험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1) 색표실험에서는 ‘눈에 띄는’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색명실험에서는 ‘깨끗한’, ‘짧은’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두 자극물 모두 ‘여성적인’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여성적인’, ‘도시적인’, ‘긴장감 있는’, ‘흥분되는’, ‘강함’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모든 요인에서 자극물에 따른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색표실험에서는 “중량감”요인이, 색명실험에서는 제1요인인 “활동성”요인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 3.3 자극물 차이에 따른 색상별 색채이미지

#### 3.3.1 빨강

전체적으로 색명실험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약간 높았으나 색표실험과 색명실험에 따른 평가에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두 자극물 모두 ‘눈에 띄는’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가벼운’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평가항목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것은 ‘화려한’, ‘부드러운’, ‘진정되는’, ‘강함’, ‘눈에 띄는’이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자극물에 따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4요인인 “중량감”요인의 평가가 두 실험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표 4).

#### 3.3.2 노랑

전체적으로 색명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약간 높았으나 빨강과 마찬가지로 색표실험과 색명실험에 따른 평가에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두 자극물 모두 ‘밝은’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느긋한’의 평가가

표 3. 자극물에 따른 차이감증  
Table 3. The Significant Level in the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평가항목	M(SD)		t값
	색표실험	색명실험	
깨끗한	3.20( .61)	3.84( .49)	-9.813***
빠른	2.99( .56)	3.35( .48)	-6.298***
따뜻한	3.12( .48)	3.26( .39)	-2.655**
여성적인	2.79( .53)	2.84( .49)	-.772
현대적인	3.11( .57)	3.28( .45)	-2.777**
도시적인	3.03( .60)	3.15( .49)	-1.890
고급스러운	3.04( .55)	3.36( .39)	-5.631***
세련된	3.01( .63)	3.35( .49)	-4.933***
화려한	3.20( .54)	3.40( .43)	-3.709**
젊은	3.35( .55)	3.84( .46)	-8.018***
경쾌한	3.10( .50)	3.64( .46)	-9.313***
새로운	2.99( .56)	3.39( .51)	-6.346***
부드러운	2.98( .50)	3.25( .44)	-4.819***
밝은	3.01( .50)	3.55( .46)	-9.162***
긴장감있는	2.98( .52)	3.08( .44)	-1.628
흥분되는	2.97( .52)	3.03( .43)	-1.071
부거운	2.89( .47)	3.09( .46)	-3.772**
강한	3.52( .47)	3.51( .47)	.166
눈에 띄는	3.56( .45)	3.81( .47)	-4.419***
활동성 요인	3.13( .44)	3.61( .31)	-10.450***
따뜻함 요인	2.95( .34)	3.20( .22)	-7.152***
세련감 요인	3.08( .51)	3.28( .34)	-4.298***
중량감 요인	3.26( .30)	3.36( .30)	-2.961**
전체	3.09( .35)	3.37( .20)	-8.171***

\*\* P<.01 \*\*\* P<.001

표 4. 자극물에 따른 빨강의 이미지 차이감증  
Table 4. The Significant Level of Red in the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평가항목	M(SD)		t값
	색표실험	색명실험	
깨끗한	3.59(1.02)	3.70( .85)	-1.055
빠른	3.91(1.04)	4.03( .89)	-1.069
따뜻한	4.31( .90)	4.37( .76)	-.633
여성적인	3.80(1.17)	3.72(1.15)	.621
현대적인	3.38(1.14)	3.36(1.00)	.114
도시적인	3.40(1.10)	3.56( .85)	-1.414
고급스러운	3.34(1.13)	3.30( .98)	.321
세련된	3.58(1.09)	3.61( .93)	-.219
화려한	4.11( .95)	4.36( .73)	-2.743**
젊은	3.96(1.02)	4.03( .97)	-.584
경쾌한	3.79(1.07)	3.81( .93)	-.167
새로운	3.40( .96)	3.32( .87)	.746
부드러운	3.25(1.02)	2.97( .93)	2.362*
밝은	3.85(1.18)	3.81( .95)	.374
느긋한	4.18(1.07)	4.09( .93)	.786
진정되는	4.25(1.07)	4.48( .74)	-2.091
가벼운	2.85(1.17)	2.89( .97)	-.348
강한	4.38( .99)	4.58( .77)	-2.018*
눈에 띄는	4.50( .97)	4.70( .59)	-2.011*
활동성 요인	3.73( .78)	3.78( .54)	-.621
따뜻함 요인	3.61( .72)	3.56( .50)	.628
세련감 요인	3.45( .92)	3.50( .67)	-.507
중량감 요인	4.30( .77)	4.44( .51)	-1.341
전체	3.78( .64)	3.83( .34)	-.875

\* P<.05 \*\* P<.01

가장 낮았다

평가항목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것은 '고급스러운', '가벼운' 이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자극물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는 것은 제2요인인 "따뜻함"요인으로 p<.001수준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평가 또한 두 실험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 3.3.3 파랑

전체적으로 색명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높았으며, 색표실험과 색명실험에 따른 평가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1). 색표실험에서는 '강한'의, 색명실험에서는 '깨끗한'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두 자극물 모두 '따뜻한'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따뜻한', '여성적인', '강한'을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4요인 모두에서 자극물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1), 색표실험에서는 제3요인인 "세련감"요인이, 색명실험에서는 제1요인인 "활동성"요인의 평가가 가장 높았다.

### 3.3.4 녹색

전체적으로 색명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높았으며, 색표실험과 색명실험에 따른 평가에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1). 색표실험에서는 '젊은'의 평가가 가장 높고, '도시적인'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색명실험에서는 '깨끗한'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진정되는'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평가항목별로 유의차가 나타난 것은 '깨끗한', '빠

표 5. 자극물에 따른 노랑의 이미지 차이검증  
Table 5. The Significant Level of Yellow in the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평가항목	M(SD)		
	색표실험	색명실험	t값
깨끗한	4.33(.86)	4.28(.85)	.564
빠른	2.98(1.12)	2.90(1.14)	.646
따뜻한	4.34(.92)	4.50(.80)	-1.431
여성적인	3.96(1.06)	4.11(.84)	-1.431
현대적인	3.13(1.02)	2.98(1.01)	1.233
도시적인	2.95(1.08)	2.74(.98)	1.893
고급스러운	3.10(.84)	3.28(.70)	-2.043*
세련된	3.15(.97)	3.15(.91)	.000
화려한	3.57(1.03)	3.39(1.05)	1.529
젊은	4.13(.85)	4.10(.87)	.288
경쾌한	4.21(.87)	4.15(.90)	.507
새로운	3.79(1.02)	3.73(1.01)	.493
부드러운	4.12(.90)	4.26(.72)	-1.487
밝은	4.63(.70)	4.66(.64)	-.426
느긋한	2.51(1.04)	2.49(1.10)	.171
진정되는	2.74(1.05)	2.56(1.05)	1.386
가벼운	3.44(1.55)	4.19(.84)	-5.335***
강한	2.76(1.32)	2.68(1.18)	.525
눈에 띄는	4.29(.96)	4.16(.94)	1.192
활동성 요인	3.89(.63)	3.83(.58)	.805
따뜻함 요인	4.09(.67)	4.35(.47)	-3.764***
유형성 요인	3.09(.72)	3.02(.60)	.896
명시성 요인	3.18(.69)	3.06(.68)	1.557
전체	3.58(.48)	3.60(.39)	-.417

\* P<.05 \*\*\* P<.001

표 6. 자극물에 따른 파랑의 이미지 차이검증  
Table 6. The Significant Level of Blue in the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평가항목	M(SD)		
	색표실험	색명실험	t값
깨끗한	2.63(1.09)	4.46(.72)	-16.303***
빠른	2.83(1.11)	4.04(1.02)	-9.655**
따뜻한	1.90(.91)	1.85(.89)	.517
여성적인	2.18(.92)	1.99(1.00)	1.610
현대적인	3.17(1.06)	3.91(.79)	-6.515***
도시적인	3.22(1.00)	3.73(.95)	-4.349***
고급스러운	2.80(.88)	3.46(.80)	-6.944***
세련된	2.75(1.06)	3.62(.89)	-7.570**
화려한	2.66(.87)	3.24(.82)	-6.160***
젊은	2.97(1.06)	4.34(.73)	-13.371***
경쾌한	2.29(1.03)	4.25(.88)	-18.351***
새로운	2.59(1.00)	3.83(.89)	-10.797***
부드러운	2.22(.75)	2.80(.95)	-5.265***
밝은	1.96(.77)	3.45(1.00)	-13.756***
느긋한	2.78(1.01)	3.24(.93)	-4.101***
진정되는	2.59(.88)	2.84(.90)	-2.667**
가벼운	2.66(1.30)	2.99(.97)	-2.572**
강한	3.67(.89)	3.82(.82)	-1.578
눈에 띄는	2.86(1.02)	3.66(1.00)	-7.824***
활동성 요인	2.67(.75)	4.17(.51)	-20.726***
따뜻함 요인	2.18(.59)	2.61(.54)	-5.953***
세련감 요인	3.04(.86)	3.65(.59)	-7.966***
중량감 요인	2.91(.60)	3.36(.55)	-7.210***
전체	2.67(.49)	3.45(.32)	-16.492***

\*\* P<.01 \*\*\* P<.001

른, '따뜻한', '고급스러운', '세련된', '젊은', '경쾌한', '새로운', '부드러운', '밝은', '가벼운', '눈에 띄는'이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제4요인인 "중량감"요인을 제외한 3요인에서 자극물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P<.001), 제1요인인 "활동성"요인의 평가가 두 실험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언어 및 비언어적 자극물에 따른 색채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8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색채의 이미지는 "활동성", "따뜻함", "세련감", "중량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됨을 알았다. 전체적으로 색명실험에 의한 이미지 평가가 색표실험에 의한 평가보다

약간 높았으며, 색표실험에서는 빨강(3.78점)-노랑(3.58점)-녹색(2.68점)-파랑(2.67점)의 순으로, 색명실험에서는 빨강(3.83점)-노랑(3.60점)-파랑(3.45점)-녹색(2.99점)의 순으로 평가가 높았다. 언어 및 비언어적 자극물, 즉 색표실험과 색명실험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빨강과 노랑은 자극물에 따른 평가에 차이가 없으나 파랑과 녹색은 유의차가 크게 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색채를 자극물로 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색채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컴퓨터시뮬레이션이나 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색의 재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색명을 자극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색상의 이미지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표 7. 자극물에 따른 녹색의 이미지 차이검증  
Table 7. The Significant Level of Green in the Language and Nonlanguage stimulant

평가항목	색표실험	색빙실험	t값
깨끗한	2.99(1.07)	3.83(.91)	-7.517* *
빠른	2.74(1.04)	3.03(.96)	-2.472*
따뜻한	2.38(.97)	2.89(.98)	-4.433***
여성적인	2.48(.85)	2.55(.84)	-.766
현대적인	2.66(.97)	2.86(.98)	-1.544
도시적인	2.19(1.06)	2.23(1.05)	-.315
고급스러운	2.77(.78)	3.11(.75)	-3.617***
세련된	2.48(.85)	2.88(.89)	-3.984***
화려한	2.51(.85)	2.48(.79)	-.302
젊은	3.23(1.09)	3.73(.94)	-4.276***
경쾌한	2.92(1.11)	3.44(1.09)	-4.037***
새로운	2.65(1.04)	3.23(1.07)	-4.793***
부드러운	2.73(.92)	3.17(.87)	-3.993***
밝은	2.57(1.01)	3.36(1.00)	-6.593***
느긋한	2.48(1.03)	2.49(.87)	-.070
진정되는	2.34(.95)	2.18(.89)	1.431
가벼운	2.73(1.05)	3.01(.98)	-2.346*
강한	3.20(.95)	3.06(.87)	1.294
눈에 띄는	2.89(1.01)	3.13(.92)	-2.011*
활동성 요인	2.91(.77)	3.45(.67)	-6.748***
따뜻함 요인	2.58(.61)	3.00(.60)	-6.033***
유행성 요인	2.54(.73)	2.78(.63)	-3.205***
명시성 요인	2.68(.62)	2.67(.51)	.237
진체	2.68(.47)	2.99(.39)	-6.103***

\* P<.05 \*\*\* P<.001

참 고 문 헌

[1] Manlio Brusatin, Histoire des Couleurs. 이수균 역, 색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미선사, 1996.  
 [2] Bride M. Whelan, Color Harmony, Rockport pub. 1994.  
 [3] 안옥희·손주희, 내학생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14, 2, 1-7, 2000  
 [4] 磯具芳郎 외 5명, 色彩と形態, 福村出版, 1974  
 [5] 이상옥·신현선, 내학생의 색가호의 색명인지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11, 3, 63-70, 1997.  
 [6] William Charles Libby, Color and the structural sense, 이양자 역, 미선사, 1992.  
 [7] 최영훈, 색채학개론, 미선사, 1990.  
 [8] Berlin, B. and Kay, P.,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ley, 1969.  
 [9] 박양순·이현주,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1998.  
 [10] 加藤雪枝 외 5명, 生活の色彩學, 朝倉書店, 1990.

◇ 저자소개 ◇

안옥희 (安玉姬)  
 1961년 11월 28일생. 1984년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졸업  
 1987년 日本奈良女子大學 주거학과(석사). 1990년 日本奈良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學術博士). 현재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당학회 조사이사.